

코오롱, 항균원사 일본인증 취득

차세대 기능성 원사 ATB-100 ... 2005년 매출액 100억원 예상

코오롱은 차세대 기능성 원사인 ATB-100이 일본 섬유평가기술협회로부터 공인인증(인증명 SEK)을 받았다고 1월12일 발표했다.

SEK는 일본 섬유평가기술협회가 정한 인증기준에 합격한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 일본 지정검사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.

코오롱의 ATB-100은 자사의 흡한속건(吸汗速乾) 기능성 원사인 COOLON에 항균·방취 기능을 첨가한 제품으로 등산, 골프 등 아웃도어 레저웨어와 마라톤, 수영 등 전문 스포츠웨어로 활용되고 있다.

2003년 5억원, 2004년 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05년에는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코오롱은 “섬유경기가 어둡지만 기능성 섬유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ATB-100을 미국, 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기업과 해외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01/13>